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09년도 표어 ☉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 행동지침 ☉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하나님 말씀의 명료성

(시편 119:105-112)

The clarity of God's word

(Psalm 119:105-112)

우리의 인생행로에서 때로 어둡고 위험한 길로 나가게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등은 밤에, 빛은 낮에 비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료성은 성경 자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으로 다른 것들을 분명히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105절), 의로운 행위(106절), 고난(107절), 바른 예배(108절), 생의 위기(109절), 울무를 놓는 악인(110절),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분명하게 알려 줍니다(11절).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2절) 라고 말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When our destiny leads us through a dark and dangerous path, we need the guiding light of God's word to save our lives more than anything else. The psalmist describes God's word as a light and a lamp: a lamp for the night and a light for the day.

The clarity of God's word refers not only to the clear message of the Bible itself, but, as with light, to everything else that can be seen clearly. God's word discloses the path that we have to go (v. 105), righteous behavior (v. 106), suffering (v. 107), right worship to God (v. 108), crisis of life (v. 109), the wicked who set a snare (v. 110), and our heritage. Therefore, the Psalmist says, "My heart is set on keeping your decrees to the very end" (v. 112).

1. 우리가 가야 할 길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신비로운 인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도가 취해야 할 우선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우선권을 택하도록 하고 사악한 것을 칭찬합니다.

1. The path we must follow

The Bible leads us in a mysterious way. It only demonstrates to us what our preference should be. On the other hand, the world makes us prefer the wrong path and praises evil.

2. 의로운 행위

105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수된 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성경은 도덕의 빛입니다. 성경은 어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걸어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2. Righteous behavior

Due to our faith in Jesus Christ, verse 105 refers to righteous behavior, but it does not mean a righteousness that is automatically handed over to us. We need the Bible in order to know what is right or not. The Bible always teaches us correctly. The world is dark, but the Bible is the light of morality. It teaches us how to walk rightly in the light through the darkness.

3. 고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성경말씀으로 돌이켜 거기에 입재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소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3. Suffering

The psalmist looked toward the Bible in the midst of suffering and looked there for God's existence. Finally, he met the God who had promised to revive his life.

4. 바른 예배

바른 예배의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 Right worship to God

There are two elements of right worship to God: one is teaching God's law, and the other is praising Him.

5. 우리의 기업

시인은 원수가 놓은 울무에 빠져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 기업으로 인도합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 곧 성도의 기업은 하늘의 상, 금 면류관,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가장 큰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5. Our heritage

The psalmist was confronted with danger, where his enemy had set a snare, but he never strayed from God's word. Spiritual warfare should lead to spiritual heritage. What Christians want as a heritage must be the reward of heaven: the golden crown, heaven itself, and God's praise. Above all, however, God's word itself should be the greatest heritage of Christian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ongregation!

The greatest heritage of all Christians is God's word, and the fact that we keep His word to the very end is what makes Him happy. By making Him happy according to His word,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ould preserve our liv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전국 장로연합회 『신앙 선언』 발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의 신앙과 신학방향에 이의를 제기-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홈페이지에 게재된 '생명강 살리기 종교여성공동선언문'과 '목회자 1000인 시국선언문'이 기독교정통신앙을 고백해 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마침내 신앙선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5일자 기독교보 28면에 전면광고형식으로 게재된 전국장로연합회 신앙선언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잡힌 신앙실천을 맹렬

“나우아미타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찌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히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들의 불장난을 조기에 진압하려는 전국 장로 연합회(회장 황명호)는 성경적 기독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형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였다.

이종윤 목사는 지난주(8월30일) 주일설교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미혹되지 말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온다는 성경진리를 강도 높게 선포한 바 있다.

손 소독제 비치

성도 간에 악수의 교제가 빈번한 교회는 최근 신종 플루(Flu) 예방차원에서 손 소독제를 교회 각종에 비치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출입시 이용 바란다.

봉사의 발길

끊이지 않는 아가페타운

아가페타운 완공을 앞두고 성도들의 봉사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는 9월1일(화)에 70인전도대 수요오후 전도팀이, 9월3일(목)에는 목요기도팀과 루디아전도회원, 시온찬양대원들이 봉사하였고 9월4일(금)에는 한나전도회원들이 9월5일(토)에는 제1스데반회 회원들이 각각 봉사를 하였다.

이번 주에는 9월7일(월) 수요기도팀과 9월12일(토) 베드로 선교회와 제2청년부 회원들이 각각 아가페타운에서 봉사를 할 예정이다.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로 더욱 아름다운 아가페타운이 세워지도록 기도한다.

장로교신학회

제14회 학술발표회

12일(토) 오후 2시 501호

장로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 제14회 학술발표회가 12일(토) 오후2시 501호에서 열린다.

태신자 품기 운동에 나도 참여를

우리교회는 계속적으로 '태신자 품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주변의 믿지 않는 이들을 태신자로 작정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전도하시기 바란다.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태신자카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하면 함께 기도하고 전도편지를 보내드리고 있다.

호산나대학생

커피 바리스타 교육 이수

지난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2회 1일 3시간 호산나대학생 4명이 사랑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커피 프린세스" 바리스타교육에 참여하여 전 과정 교육을 이수하였다.

내일 - 제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개강

7일(월)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이 매년 두 학기로 개최하고 있는 '목회자신학세미나' 제36기 과정이 내일부터 11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한국교회 성장과 연합을 위한 교파신학의 정체성'으로 국내외의 주요 개혁신학 교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강사로 초청되어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에 대해 설명하는 귀한 자리로 준비된다.

또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장인 이종윤 목사가 진행

하는 제1교시는 지난 학기로 마태복음을 모두 마치고 '소선지서'를 시작한다.

세계교회와 민족교회를 위해 제사장 교회로 세우신 서울교회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매년 두 학기 10주간 진행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는 매 학기마다 전국에서 모여든 교역자들로 강의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은혜로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개강되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기도한다.

2009년 열린바자

9월24일(목)-25일(금) 2일간 오전10시-오후 7시
한 가정에 한 품목 이상 기증, 한 품목 이상 구매토록

이웃사랑(탈북난민)과 아가페 타운 건립을 위한 2009년 열린바자(위원장 이복규 장로)가 가까이 다가오므로 교구별로 바자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 준비된 바자 물품이 입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열린바자는 추석을 한 주 앞둔 9월24일(목)과 25일(금) 2일간 열리며, 오전10시에 개장하여 오후 7시에 폐장한다.

열린바자는 성도들이 간직하고 있던 소장품들을 출품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소외된 장애인과 노인들)을 섬기는 아가페타운 건축을 위해 물질, 시간과 땀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서울교회 앞마당과 1층 로비, 7층과 8층 식당 그리고 한티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바자에서 판매할 물품은 성도들의 헌물(부동산, 회원권, 상품권, 유가증권, 도자기, 미술품, 귀금속 등)과 위탁상품(농수산 특산물 및 추석 선물용품) 등으로 추석을 앞두고 각종 선물을 준비하실 성도들은 이번 바자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번 바자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은혜 중에 준비되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09년 하반기 교사 교육 및 기도회

9월 중 각 교회학교별로 / 보고서 제출(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는 2009년 하반기 교사 교육 및 기도회를 각 교회학교별로 실시한다.

이번 교사 교육 및 기도회는 2009년 교육위원회 연중 사업계획에 의거, 9월 한 달 동안 각 교회학교별로 모이기 좋은 시간을 택해 주님이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교육하는 자리로 모이면 된다. 단, 교회학교별로 기도회와 교육을 갖은 후 교육위원회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주님이 맡기신 귀한 생명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서울교회 교사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농어촌100교회 교역자 초청

농어촌교회가 살아야

전도위원회(위원장 홍성주 장로)는 지난 8월 31일 농어촌 100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후원자와 함께 하는 농어촌교회 목회자를 초청, 이 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은 모두 우리교회 성도와 각 기관들이 후원하는 교회의 교역자들로 강원노회, 경안노회, 전서노회, 목포동노회의 59개 교회에서 48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이 날 행사는 1부 경건회에 이어 이종윤 목사님의 특강이 있었고, 환영 오찬이 있는 후 참석자 중 네 분 목회자의 선교 활동과 농촌 교회의 비전을 나누었으며, 또 후원자는 각자가 후원



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실제로 만나 교회의 상황을 듣고 구체적인 기도제목도 나누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강을 통해 이종윤 목사님은 참석하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목회’를 하실 것을 당부하며 그 방법으로 ABC 3PR(Ardent Prayer, Biblical Preaching, Consistent Program), 곧 열렬한 기도, 성경적 설교,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목회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이 100% 하시고, 인간이 100% 할 때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농어촌교회의 교역자들은 한결같이 농촌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하며 성도들은 농촌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기를 당부했다.

1995년 제주도에서 있었던 장로수련회 시 오지에 있는 교회를 답사하며 시작된 우리교회의 농어

촌 100교회 운동은 모두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며 개교회의 이 운동이 총회로까지 확산되어 이제 우리교단의 중요사업으로 자리 잡아 많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 농어촌교회를 돕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여 모든 농어촌교회가 지역적 한계를 딛고 전도와 말씀선포에만 전념하도록 기도한다.

정리: 허숙 권사 (편집부)
사진: 유태서 집사 (편집부)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한정배 전도사(전남 모도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
서울교회는 한국교회를 향도하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농어촌100교회운동’을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장신대 신대원 목연과를 졸업하고 이곳에 내려온지 2년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 모도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곳은 두 개 마을로 모동리와 모서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에는 저희 교회에서 모동리와 모서리 두 마을을 섬겼지만 2007년 12월 5일 독립교단 선교회에서 모동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 그곳에 거주하는 교인 6명을 개척한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모서리에는 현재 93명이 살고 있으며 55가정 중 20가정이 노인 혼자 사는 가정이

고 조손가정 아이들이 6명이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작은 섬이라 어느 농촌과는 다르게 국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작은 슈퍼마켓도 없는 곳, 아프기라도 하면 간호사가 있는 보건지소까지 1시간은 족히 걸어야 하는 이 섬에서의 사역은 우리부부를 바쁘게 합니다. 해풍에 녹슨 출입문 고치기, 보일러 놓기, 도배 등 우리 부부가 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34명이 출석하는 모도교회는 지난 부활절 새생명 축제 때 53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좁아 의자를 밀어내고 53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교회도 새로 지어아 되겠네”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잠깐동안 봉어빵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로 동네 주민들에게 일 주일에 한번씩 봉어빵을 구워드리는데 봉어빵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 이제는 주민들과 꽤 가깝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교회 예배당의 좌석이 30석으로 어른이 28명이 되어서 당장 예배당 건축이 필요해졌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모도는 우상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섬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저들의 닫힌 마음들이 열리고 옥토가 되어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머지않은 날 생명구원의 열매들로 수확하여 모도가 온전한 주님의 숲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울교회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09년 성경암송대회

2009년 성경암송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회의 범위는 로마서 1장-5장까지이며 10월18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이 10월23일(금)에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성경말씀을 암송하며 본인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09년 성경암송대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천국시민양성

아가페 타운을 생각하며

이동귀 집사(호산나학교 부학장)



호산나 대학 수련회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마치 지난 여름 내내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만 같습니다.

아가페 타운의 본관, 중앙 종탑, 대강당, 체육관, 기숙사동 등 건물들이 하나하나 그 모습을 드러낼 때의 그 감동은 마치 기적을 목도하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매주 드리어지는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를 위한 기도과 여름수련회를 통한 뜨거운 섬김과 헌신들, 아가페타운을 오가는 끊임없는 교우님들의 봉사의 손길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호산나학교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며 소망을 품은 정결한 마음으로 메주콩을 삶고 인내와 기도의 마음으로 버무려 만든 '호산나 콩된장'을 만들었고, 온갖 정성을 담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달여 낸 '다림 간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봄부터 준비한 '호산나 햇간장'은 이젠 우리들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

이 되어 우리들과 함께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섬김과 나눔들이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우리 호산나 콩된장, 다림 간장, 호산나 햇간장을 찾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아이들이 직접 이상품을 주문하신 데에 배달해 드리는 역할을 맡아 작게나마 큰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슴에 물건을 안고 주소 적힌 쪽지를 소중히 간직한 채 학교를 나서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문 받은 곳까지 배달을 마치고는 책임을 완수했다는 기쁨을 가슴 가득 머금은 채 미션완수의 연락을 해 오는 흥분된 목소리를 들을 때 마다 그저 "감사합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수요일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16년째 국립합창단의 정반주자와 트레이너로 수고하는 백경화 집사가 지휘를 맡아 하나님의 나라를 테마로 하여 "시온을 향한 행진(C. Kirkland & D. Dawson)" 외에 2곡으로 찬양 드린다.

팀파니 박광서 집사, 오르간 이순재 성도, 피아노 서유진 성도가 담당한다.

니다. 하나님..."을 되뇌입니다. 겸손한 미소로 된장 간장 용기 하나하나를 포장하시던 우리 호산나부모님들의 정성어린 헌물 또한 모아져 호산나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호산나학교의 예배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울려 퍼집니다.

우리들도 부지런히 자라나 힘닿는데까지 아가페 타운에 섬김의 천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7일(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동천교회(박귀환 목사) 입당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12일(토) 장로교신학회 제14회 학술발표회와 갈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가 선정한 올해의 신학자 시상식을 갖는다.

■ 임명 : 박광서 집사(할렐루야 팀파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장에 임명

■ 승진: (11교구)윤석원 집사(현승회 집사 부군) 두산중공업 Water BG 전무

■ 특녀: (11교구)전정연 성도 조성훈 성도 가정(천기성 집사 박천희 권사 장남 가정)

(교구)황남득 집사 손지영 성도

■ 이사: (7교구) 이기원 집사 마포구 공덕동 삼성레미안4차 411-701

(2교구)노병호 성도, 홍지나 집사 가정 청담동 117-22 대우리치 카운티 503호

신봉하 집사, 전숙향 집사 (5-10)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마을 생용아파트 103-604

박은호 집사, 백해인 집사 (6-5)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 311-903

■ 공장이전 : 신봉하 집사, 전숙향 집사 (5-10) 화성시 진안동 46-11 전화: 031-892-0303

■ 주간식당봉사 : 제2스대반회(9월6일) 제1권사회(9월 13일)

■ 금주의 식사 : 주영도 집사 오기연 집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편지 왔어요

머리속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얼마 전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들이 몽골에 정책탐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탐방을 하던 어느 하루 우리 일행은 몽골 초원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호수 같은 큰 저수지를 만났습니다. 일행은 쉬어갈 겸해서 차에서 내려 호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급히 달려와 울면서 무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녀가 물에 빠졌는데 한 소녀는 간신히 구조되었고, 또 한 소녀는 결국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죽은 소녀의 아버지는 목이 메어 울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소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물에서 건져진 소녀는 극심한 저 체온증에 온 몸을 떨며 입술이 파랗게 변색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를 온 몸으로 감싸 안고 자기의 체온으로 소녀의 몸을 녹이며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소녀의 부모를 눈물로 위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곧 숙소에 돌아왔으나 그 분은 끝까지

현장에 남아 비탄과 절망에 빠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속 기도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라더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서울교회 최치순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두 소녀의 부모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고, 믿고 싶다고 하였답니다. 백 마디의 화려한 설교보다 진심어린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본인은 오히려 굳게 입을 다물고 있으나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속여 최 집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울교회와 최 집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영대(여의도 연구소 정책자문위원장)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3. 새로 열리는 다락방마다 은혜 충만토록
4. 목회자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살롬경로대학, 주부대학 등 열린프로그램 위해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